2013년도 국가직 9급 국어 기출 문제 해설/ 오대혁

<출제 경향 분석>

순풍에 돛 단 듯이 수험생들이 전체적으로 쉽게 풀었을 문제였다. 어문규정(5문제: 한글 맞춤법 2, 표준발음 1, 띄어쓰기 1, 어법 1), 국문법(3: 언어의 특성1, 합성어의 종류1, 유의어1), 문학(수필 2), 한자(한자성어 2), 비문학(말하기 1, 쓰기 5, 독해 2) 순으로 나왔는데 비문학 부문이 7문제나 나왔지만 커다란 어려움 없이 풀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세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자.

(1) 기존에 출제되었던 어문규정을 그대로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표준 발음으로 '의'의 쓰임을 물었다. 의존명사 '지'의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으로 '늘이다'와 '늘리다'의 차이, '가늠'과 '가름', '갈음'의 차이, '로서'와 '로써'의 차이, '바람'과 '바램'의 구분 등 매우 평의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어법 문제로 '동시에'의 쓰임을 출제했는데, 이는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신선한 것이었다. '~인 동시에'라는 표현이 굳어져 쓰이는 경우를 보여주었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문제들이었다.

(2) 문법 문제로 ① 언어 기호의 특성이 4년 만에 출제되었다. 언어의 분절성을 묻는 문제였다. ② 단어의 형성에서 합성어의 종류를 물었는데,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를 묻다가 종속적 합성어라는 의미 결합 형태를 묻는 문제로 변환하여 출제하였다. ③ 유의어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이다. 밑의 해설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지만 같은 한자어로서 유의어를 제시해 두고 고유어로서 유의어가 되는 단어를 답으로 삼았으니 문제가 적잖다. 이는 이의제기를 통해 정정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3) 문학 문제로 '고전 수필의 중심내용'과 '현대수필의 독해'를 다루었다. 기존의 시 또는 소설을 출제했던 것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준 것이다.

(4) 한자성어로 '운니지차(雲泥之差)'와 '자승자박(自繩自縛)'이 출제되었다. 따로 한자 문제를 내지 않아 수험생들이 쉽게 느꼈을 것이다.

(5) 비문학에서 말하기 문제로 '토론'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쓰기 문제로 ①논지 전개방식으로 '유추'를 출제했다. 2012년도에 '예시'를 답으로 한 설명 문제를 냈는데, 이번에는 논증의 방식을 출제한 것이다. ② 퇴고 문제로 어문 규정을 활용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③ 문장의 연결 문제를 두 문제나 출제했는데 정확한 풀이 과정을 알고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④ 제목 찾기 문제 또한 출제되었다. 독해 문제로는 내용의 일치와 내용의 파악 등 따지고 보면 모두 일치 문제를 출제했다. 이 또한 어려움이 별로 없었다.

문 1.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부모님을 한 달에 두 번꼴로 찾아뵈려고 노력한다.
② 서류를 정리할 때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면 편리하다.
③ 이미 그 일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④ 어느 말을 믿어야 옳은 지 모르겠다.

정답 ④

[띄어쓰기]

자주 출제되었던 '지'의 띄어쓰기를 보여준 문제이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답을 찾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가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기간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제시된 부분은 '-ㄴ지'라는 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옳다.

* 의존 명사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낸다.
  예)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 /집을 떠나 온 지 어언 3년이 지났다.

오답피하기

① '번'은 의존명사로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그리고 '꼴'은 '째'와 같이 접미사로 붙여 쓰는 것이 합당하다. '꼴'은 '수량만큼 해당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② '순(順)'은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가나다'에 붙여 써야 옳다.
③ '온'은 관형사로 국민을 꾸며주므로 '국민'과 띄어 쓰는 것이 합당하다.

'온갖'과 같은 경우는 합성어로 붙여 쓴다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 2013년도 국가직 대비 100제 찍기 특강**

41.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④ 그가∨집을∨떠난지∨일∨년이∨지났다.

문 2.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 중의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 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지 오래 된 것은 그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재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害)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재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 버린 재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이규보, '이옥설(理屋說)'

베리타스고시학원 | 02.826.5700 www.veritasMgosi.co.kr (주) 유비온 | 유비쿼터스에 기반한 평생교육기업 www.ubion.co.kr

① 모든 일에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② 청렴한 인재 선발을 통해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③ 잘못을 알게 되면 바로 고쳐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④ 훌륭한 위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사 삼가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정답 ③
[고전 수필의 중심 내용]
비가 샌 행랑채를 수리했던 경험을 통해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글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문제였다.

*** 2013년도 국가직 대비 적중모의고사 제10회 지문 일치 해설이 출제됨.**

19. 다음 글의 화자가 현실 사회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와 가장 관련이 깊은 한자성어는?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 중의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 되었으나, 나는 - (중략) -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 버린 재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이규보, '이옥설'

① 苛斂誅求 ② 烏飛梨落 ③ 麥秀之嘆 ④ 有備無患

19. ①
인간의 삶의 이치와 나라를 다스리는 경륜을 실생활의 체험을 통해 깨우쳐주고 있는 수필이다. 이 작품과 관련된 한자성어는 유비무환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 사회와 관련된 한자성어를 찾으라고 했으므로 ①이 더 적합하다.

<이옥설(理屋說) >
▶ 작자 : 이규보
▶ 갈래 : 고대 수필, 한문 수필
▶ 성격 : 교훈적, 예시적, 경험적 ▶ 구성 : 미괄식 구성
▶ 제재 : 퇴락(頹落)한 행랑채
▶ **주제 : 잘못을 미리 알고 그것을 고쳐 나가는 자세의 중요성**
▶ 출전 : <동국이상국집>

문 3.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언어 기호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 언어는 문장, 단어, 형태소, 음운으로 쪼개어 나눌 수 있다. 특히 한정된 음운을 결합하여서 수많은 형태소, 단어를 만들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 언어는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실제로 무지개 색깔 사이의 경계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우리는 무지개 색깔이 일곱 가지라고 말한다.

① 추상성 ② 자의성
③ 분절성 ④ 역사성

정답 ③
[언어 기호의 특성]
언어의 분절성을 설명하고 있다. 2008년도 지방직에 '자의성'을 답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오랜만에 언어 기호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추상성 : 사물의 공통 속성을 추출하여 총칭어를 만드는 과정을 추상화 과정이라 하고, 이러한 언어의 성질을 추상성이라 한다.
② 자의성 :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의 필연성이 없음을 말한다.
④ 역사성 : 언어가 생성되고 변천하며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말한다.

*** 『건곤일척 전 범위 실전 문제집』 1회 출제, 답과 해설이 일치**

4. 다음은 언어의 어떤 성질을 말하는 것인가?

㉮ 계절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표현한다.
㉯ 기온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도 아닌데 춥다, 덥다 등으로 표현한다.
㉰ 사람의 일생을 우리는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표현한다.

① 언어의 구분성 ② 언어의 자의성
③ 언어의 분절성 ④ 언어의 체계성

4. ③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이를 언어의 분절성이라 표현한다.

문 4. 밑줄 친 말을 잘못 고친 것은?

① 그는 굉장한 사업 수단으로 재산을 빠른 속도로 늘렸다. → 늘였다.
② 좀 전에 제시한 것으로 의견 표명을 가름하겠습니다. → 갈음
③ 이 사건은 의협과 용기로서 대처해야 한다. → 로써
④ 나에 대한 너의 판단은 달랐어. → 틀렸어.

정답 ①

[한글 맞춤법]

평소 자주 등장했던 한글 맞춤법 문제가 출제되었다.

* 늘리다: 다양한 뜻을 갖는데 그 중에 하나로 여기서는 살림이 넉넉해지도록 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예) 살림을 늘리다. / 그 집은 알뜰한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금세 재산을 늘려 부자가 되었다.
* 늘이다: 1.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 예) 고무줄을 늘이다. / 엿가락을 늘이다. 2. (주로 '선'과 관련된 말을 목적어로 하여) 선 따위를 연장하여 계속 긋다. 예) 선분 ㄱㄴ을 늘이면 다른 선분과 만나게 된다.

오답피하기

② 가늠: 어떤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이나 상황을 헤아려서 짐작함을 뜻한다.
가름: 사물이나 상황을 구별하거나 분별하는 일.
갈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③ '로서'는 자격을 나타내고, '로써'는 수단이나 방법 따위를 나타낼 때 쓰는 부사격 조사이다. 당연히 '로써'를 써야 한다.

④ '틀렸어'가 맞는 표현이다.
* 다르다: 1.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2.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다.
* 틀리다: 1.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2. 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다.

*** 2013년도 7월 국가직 대비 적중 모의고사 2회 출제**

1. 다음 밑줄 그은 단어 중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②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 주식의 값이 오를 것인지 가름을 할 수 없다.

1. ②

'가늠'이 적절하다. '가늠'은 어떤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이나 상황을 헤아려서 짐작함을 뜻한다.

'가름'은 '사물이나 상황을 구별하거나 분별하는 일.'을 뜻한다.

'갈음'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을 뜻한다.

*** 국어 최종 100제 찍기 특강 보충자료**

⑤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진 것이 이번으로써 세 번째다.

－로서 : 받침 없는 체언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1.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
2. 예스러운 표현으로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을 나타내는 격조사.

－로써 : 받침 없는 체언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문 5. 괄호 안에 들어갈 고사 성어로 적절한 것은?

좀 과장하자면, 그 집의 겉과 속은 (　　)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달랐다.

① 阿鼻叫喚　　② 雲泥之差
③ 怒氣登天　　④ 百難之中

정답 ②

[한자성어]

다름을 말하는 고사 성어를 찾아야 한다. '차이'을 뜻하는 '차(差)'를 알았다면 금방 답할 수 있는 문제였다.

운니지차(雲泥之差): 구름과 진흙의 차이라는 뜻으로, 서로 간의 차이가 매우 심함을 이르는 말.

오답피하기

① 아비규환(阿鼻叫喚): 1.<불교>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을 아울러 이르는 말.2.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울부짖는 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노기등천(怒氣登天): 성이 하늘을 찌를 듯이 머리끝까지 치받쳐 있다.

④ 백난지중(百難之中):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 오대혁 한자특강 '운니지차(雲泥之差)'(292쪽)**

雲泥之差(구 름 운 진흙 니	지 어긋날 차)
天壤之差(하늘 천 흙 양	지 어긋날 차)

*** 최근 국가직 7급 지문에도 등장하여 천양지차, 운니지차를 함께 살펴봤다.**

<한자 표현>
霄壤之差(소양지차):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差異)
貪淫縱慾(탐음종욕): 음탕한 것을 탐내고 욕정을 따름.

문 6. 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젠가부터 우리 바다 속에 해파리나 불가사리와 같이 특정한 종들만이 크게 번창하고 있다는 우려의 말이 들린다. 한마디로 다양성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다. 척박한 환경에서는 몇몇 특별한 종들만이 득세한다는 점에서 자연 생태계와 우리 사회는 닮은 것 같다.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앞으로 어려워질 경제상황은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사회 전체로 볼 때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원과 에너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들 몇몇 집단들만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이들이 쓰다 남은 물자와 이용하지 못한 에너지는 고스란히 버려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효율성이 극히 낮다. 다양성 확보는 사회 집단의 생존과도 무관하지 않다. 조류 독감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양계장은 물론 그 주변 양계장의 닭까지 모조리 폐사시켜야 하는 참혹한 현실을 본다. 단 한 마리 닭이 걸려도 그렇게 많은 닭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인공적인 교배로 인해 이들 모두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유전형질을 확보하는 길만이 재앙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이처럼 다양성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사회 안정에 중요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출산 휴가를 주고, 노약자를 배려하고, 장애인에게 보조공학 기기와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행정 제도 개선 등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하는 넓은 이해와 사랑에 대한 기회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베리타스고시학원 | 02.826.5700 www.veritasMgosi.co.kr (주) 유비온 | 유비쿼터스에 기반한 평생교육기업 www.ubion.co.kr

①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관점이 다른 두 주장을 대비하고 있다.
②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유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③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를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④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의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다.

정답 ②
[쓰기- 논지 전개방식]
첫째 단락의 "척박한 환경에서는 몇몇 특별한 종들만이 득세한다는 점에서 자연 생태계와 우리 사회는 닮은 것 같다.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앞으로 어려워질 경제상황은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진술에서 명확히 논지 전개 방식이 보인다. 자연 생태계가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듯, 사회 집단도 역시 다양성을 확보해야만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을 유추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오답피하기
① 관점이 다른 두 주장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③ 분류는 기준을 가지고 특성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진술 방식이다.
④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의 사례를 나열하고 있지 않다.

* 2013년도 7월 국가직 대비 적중 모의고사 9회 유사 문제 출제

8. 다음 글의 진술으로 적절한 것은?

시김새란 '삭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시김새는 김치 담그는 과정과 유사하다. 김치를 담글 때 무나 배추를 소금에 절여 숨을 죽이고 갖은 양념을 해서 일정 기간 숙성(熟成)시켜 맛을 내듯, 시김새 역시 음악가가 손과 마음으로 삭여냈을 때 맛이 드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같은 재료를 썼는데도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고, 지방에 따라 양념을 고르는 법이 달라 다른 맛을 내듯 시김새는 음악 표현의 질감(質感)을 달리하는 핵심 요소이다.

① 유추 ② 분류
③ 비교 ④ 귀납

8. ①
'유추'를 통해 '시김새'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유추는 구조와 속성의 유사성을 통해 논증하는 방식인데, 이는 ①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문 7. 다음은 기행문의 일부이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내용은?

인천국제공항 광장에 걸린, '한민족의 뿌리를 찾자! 대한 고등학교 연수단'이라고 쓴 현수막을 보자 내 가슴은 마구 뛰었다.

난생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 8월 15일 오후 3시 15분 비행기에 오르는 나는 한여름의 무더위도 잊고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거대한 공항 청사는 곧 성냥갑처럼 작아졌고, 푸른 바다와 들판은 빙빙 돌아가는 듯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구름은 정말 아름다웠다. 뭉게뭉게 떠다니는 하얀 구름밭은 꼭 동화 속에서나 나옴직한 신비의 나라,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꿈속을 헤매는 영원한 방랑자가 된 걸까?'

① 여행의 동기와 목적
② 출발할 때의 감흥
③ 출발할 때의 날씨와 시간
④ 여행의 노정과 일정?

정답 ④
[수필의 독해]
기행문에 제시된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기행문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노정과 일정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는 문제였다. 기행문에서 '노정'은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을 뜻한다. 그리고 '일정'은 여행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의 계획을 날짜별로 짜 놓은 것을 뜻한다. 제시문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여행의 동기와 목적: '한민족의 뿌리를 찾자!'라는 표현.
② 출발할 때의 감흥: '내 가슴은 마구 뛰었다.'라는 표현.
③ 출발할 때의 날씨와 시간: '8월 15일 오후 3시 15분'

* 건곤일척 전 범위 실전 문제집 유형 50제 기행문 출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뒷벽 중앙에 새긴 십일면관음보살은 더할 나위 없는 여성미와 육체미까지 나타내었다. 어디까지나 아름답고 의젓한 얼굴판은 그만 두더라도, 곱고도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드리운 오른팔, 엄지와 장지 사이로 살며시 구슬 줄을 들었는데, 그 어여쁜 손가락이 곰실곰실 움직이는 듯. 병을 치키어 쥔 포동포동한 왼쪽 팔뚝! 종교 예술품으로 이렇게 곡선미를, 여성미를 영절스럽게도* 나타낼 수 있으랴? 그나 그뿐인가? (하략)

-현진건, <불국사 기행> 중에서

[유형 6-1. 수필의 감상]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선의 이동에 따른 서술을 하고 있다.
② 대상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현재법을 써서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③ 대상과의 거리가 매우 밀착되어 있다.
④ 설명적 묘사의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해설>
시선의 이동에 다라 대상을 주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묘사 : 어떤 대상을 눈에 보여 주듯이 그로써 그려내는, 즉 대상의 감각적 인상을 재현하는 진술 방식이다. 묘사도 서사와 마찬가지로 정서 표현,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 두루 쓰인다. 묘사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재현하는 객관적(설명적) 묘사와 주관적 인상이나 느낌을 제시하는 주관적(문학적) 묘사가 있다.

베리타스고시학원 | 02.826.5700 www.veritasMgosi.co.kr (주) 유비온 | 유비쿼터스에 기반한 평생교육기업 www.ubion.co.kr

문 8. 유의어의 종류가 다음과 같은 것은?

옥수수 – 강냉이

① 친구 – 벗
② 보조개 – 볼우물
③ 매니저 – 관리인
④ 소금 – 염화나트륨

정답 ② 또는 답 없음.

[유의어의 종류]

소리가 다르면서 의미가 비슷한 단어를 일러 유의어라 한다. 이런 유의 관계를 이루는 방식은 '밥과 진지'처럼 높임말로, '어머니와 어멈'처럼 낮춤말로, '화나다와 화딱지나다'와 같이 속어 등 많은 경우에 나타난다. 이 문제는 이를 문제화한 것인데 출제 의도를 알겠으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① 한자어 : 고유어 → 친구(親舊) : 벗

* '親舊'란 용어는 진(晉)나라의 진수(陳壽: 233~297)가 편찬한 <삼국지(三國志)>에 처음 등장하며, 이전 기록으로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舊(구)'가 동의어 '故(고)'로 기재되어 '親故(친고)'로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면 친구는 '아주 먼 과거'에서 나아가 '오랜 교분을 나눈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던 것이다.

* '벗'의 본말은 ㄷ 받침의 'ᄇᆞᆫ'이었는데, 팔을 기꺼이 'ᄇᆞᆫ(벋)을(내밀 수 있는)' 이가 곧 벗이라 하겠다.

② 고유어 : 고유어 → 보조개 : 볼우물

* '볼+조개'에서 'ㄹ'이 탈락해 '보조개'가 되었고, '볼+우물'이 '볼우물'로 쓰였다.

③ 외래어 : 한자어 → 매니저(maniger) : 관리인(管理人)

④ 일반어 : 특수어(전문어) → 소금 : 염화나트륨(鹽化Natrium)

'옥수수'와 '강냉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물을 들여다보자.

수수는 한자 '黍[shǔ-해설자 주]'에서 그 음을 따서 '슈슈>수수'로 부르게 된 이름이다. 지금은 수수나 옥수수, 그리고 기장이 각기 다른 종으로 취급되지만 이전에는 슈슈(黍)란 이름 하나로 통칭되었다. 이 슈슈를 달리 蜀黍, 唐黍, 高粱이라 부르기도 하고, 특히 옥수수만은 '玉蜀黍[yùshǔshǔ-해설자 주]'라 불리기도 한다. 기존의 수수보다 알갱이가 더 굵고 탐스러워 본래의 이름에 '구슬 玉' 자를 접두한 것이다. …(중략)…옥수수를 달리 강냉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강낭콩과 마찬가지로 중국 양자강 남쪽에서 전래되었다는 지리적 배경에서 얻어진 별칭이다.

– 천소영, 『한국어와 한국문화』, 우리책, 2005, 128쪽.

위의 진술에 나오다시피 **'옥수수'는 순우리말이 아니며, 중국어 사전에도 엄연히 '玉蜀黍'는 다음과 같은 해설을 달고 있다.**

一年生草本。秆粗壮，直立，高1~4米，节间有髓，基部各节具气生根。叶片长大，扁平，剑形或披针形，先端渐尖，边缘呈波状皱折，具强壮之中脉。

/玉高粱(《纲目》)，番麦、御麦(《留青日札》)，西番麦(《学圃杂疏》)，玉麦、玉蜀秫(《农政全书》)，玉蜀黍(《纲目》)，戎菽(《广群芳谱》)，红须麦(《蒙化府志》)，薏米包(《医林纂要》)，珍珠芦粟、苞芦、鹿角黍、御米(《双溪物产疏》)，包谷、陆谷、玉黍(《齐民四术》)，西天麦(《平凉县志》)，玉露秫秫(《植物名实图考》)，纤粟(《随息居饮食谱》)，珍珠米(《尔雅谷名考》)，粟米、包粟(《岭南采药录》)，包麦米(《中国药植志》)，苞米(《广西中兽医药植》)。

–http://www.baike.com/wiki/%E7%8E%89%E8%9C%80%E9%BB%8D

'강냉이'는 '江南+이'가 변화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순우리말'은 "우리말 중에서 고유어만을 이르는 말."이며, '고유어'는 "해당 언어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 국어에서는 '아버지', '어머니1', '하늘1', '땅1' 따위가 있다."라고 『표준국어대사전』은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풀이를 고려한다면 **'옥수수 : 강냉이'는 모두 '고유어'나 '순우리말'이라 표현해서는 안 된다. 두 어휘는 '한자어 기원의 말 : 한자어 기원의 말'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유의어**이다.

위와 같은 내용에 기반 해서 '옥수수 – 강냉이'의 유의 관계를 찾는다면 답이 없다. 이는 출제자가 정확하게 출제 의도를 밝힐 필요가 있는 문제로 보인다. 아마도 출제자는 두 어휘가 고유어로서 유의어임을 보여주려 했겠으나 어원 차원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굳이 ②를 답으로 해야 한다고 출제자가 합당성을 주장하려면, 한자어로서의 유의어가 되듯 같은 성격의 유의어를 찾으라는 것으로 '순우리말'로서의 유의어인 ②를 답으로 했던 것이라는 비루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 『고갱이 국어』(배움, 2013, 2쇄) '단어들의 의미 관계'에 자세한 설명이 있음.(182쪽.)**

*** 2013년도 6월 <한국고시> Top-test 유사 문제 출제**

10. 어휘의 의미 관계가 ㉠ : ㉡과 다른 것은?

구한말 경허선사의 제자인 수월(1855~1928)은 말년에 북간도에서 수행하였다. ㉠열반(涅槃)할 때가 되어 목욕해 마치고, 스스로 쌓아놓은 장작더미에 올라 ㉡입적(入寂)하였다고 한다. 제자 하나 거둬주지 않는 곳에서 홀로 스스로 화한 수월의 모습이 수채화처럼 그려진다.(하략)

① 가끔 : 드문드문　　② 웃음 : 폭소
③ 감정 : 서정　　④ 정당화 : 합법화

10. ②

제시된 '입적'와 '열반'은 유의 관계에 있는 어휘이다. '웃음'과 '홍소'는 하의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웃음'에는 '미소(微笑), 폭소(爆笑), 홍소(哄笑), 조소(嘲笑)'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홍소(哄笑) : 입을 크게 벌리고 웃거나 떠들썩하게 웃음. 또는 그 웃음. 유의어: 가가대소, 너털웃음, 폭소.

* 가끔 – 더러 – 이따금 – 드문드문 – 때로 – 간혹 – 자주

베리타스고시학원 | 02.826.5700 www.veritasMgosi.co.kr (주) 유비온 | 유비쿼터스에 기반한 평생교육기업 www.ubion.co.kr

문 9.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은?

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② 모두 흥에 겨워 춤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
③ 축배를 터뜨리며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누었다.
④ 독서는 삶의 방편인 동시에 평생의 반려자이기도 하다.

정답 ④

[어법]

어법 문제로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다. 우선 서술어를 확인하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성분과 조사의 쓰임, 호응 등의 문제를 따져보아야 한다.

④에서는 '동시에'라는 표현이 갖는 독특한 문장 구조를 알았다면 좋았을 문제이다.

(1) 같은 때. 또는 같은 시기.

예)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결승점에 들어왔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우승 소식을 듣고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다.

(2) [주로 '~과 동시에'의 구성으로 쓰여]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잇달음.

예) 그의 연설이 끝남과 동시에 기립 박수가 이어졌다.

일본 팀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한 골을 먹고 말았다.

(3) [주로 '~인 동시에'의 구성으로 쓰여]어떤 사실을 겸함.

예) 그는 사업가인 동시에 정치가다.

* 관용적으로 써 왔던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의미상 다음과 같이 이어진 문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 일반적인 호응과는 다른 특수한 경우를 보여준 문제였다.

독서는 삶의 방편인 동시에 평생의 반려자이기도 하다.

= 독서는(주어) 삶의 방편이며(서술어), 동시에 평생의 반려자이기도 하다.(서술어)

오답피하기

① '계시다'는 간접 높임법에서 서술어로 쓰이지 않는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② 서술어가 '부르고 있다'인데 목적어를 '춤과 노래를'을 취하고 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만, '춤을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모두 흥에 겨워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써야 옳다. "~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고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 A하고 ~ B하다.' 는 A를 먼저 행하고 B를 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A하거나 ~B하다.'라고 써야 동시에 벌어진 사건임을 보여줄 수 있겠다.
③ '터뜨리다'라는 서술어는 '샴페인을'과 같은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굳이 '축배'를 목적어로 하려면 '축배를 들며' 정도의 표현이 적절하다.

* **『고갱이 국어』(배움, 2013, 2쇄) '바른 말 좋은 글'에 자세한 설명이 있음.(336쪽.)**

문 10. 밑줄 친 부분이 표준 발음법에 맞는 것은?

① 이 책을 좀 읽게[익께].
② 이 밭을[바츨] 다 갈아야 돼.
③ 협의[혀비]할 사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④ 하늘은 맑지만[말찌만] 내 마음은 안 그래요.

정답 ③

[표준 발음법]

매우 기본적인 표준 발음을 문제화했다. 늘 기본이 중요한 법. 한 단어 내에서 '의'는 [의/이] 모두 발음을 허용한다. [혀븨/혀비] 모두 발음을 허용한다.

오답피하기

① 용언에서 'ㄹㄱ+ㄱ→ㄹ+ㄲ'의 형태를 취한다. 읽게[일께].
② 실질 형태소 +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사) → 연결하여 발음. 밭을[바틀]
④ 용언에서 'ㄹㄱ+ㄱ 이외의 자음 →ㄱ+ ○'의 형태를 취한다. 맑지만[막찌만].

*** 2013년도 국가직 대비 100제 찍기 특강 확고한 적중**

28. 다음 단어의 발음 가운데 잘못된 것은?

① 주의[주이] ② 강의의[강:이에]
③ 협의[혀븨] ④ 늴리리[닐리리]

28. ④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주의[주의/주이], 협의[혀븨/혀비], 강의의[강:의의/강:이에]

문 11. 다음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고사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여러 기업들이 상위 5% 고객에게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을 벌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서도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 실제로 모 기업은 지난해 초 'VIP 회원'보다 상위 고객을 노린 'VVIP 회원'을 만들면서 △매년 동남아·중국 7개 지역 왕복 무료 항공권 △9개 호텔 무료 숙박 △해외 유명 골프장 그린피 무료 등을 서비스로 내세워다. 하지만 최근에 이 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는 회사들이 비용 분담에 압박을 느끼면서 서비스 중단을 차례로 통보했다. 또 자사 분담으로 제공하고 있던 호텔 숙박권 역시 비용 축소를 위해 3월부터 서비스를 없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회원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업계가 저마다 지난해 VIP 마케팅을 내세웠지만 높은 연회비로 인해 판매 실적은 저조한 반면 무료 공연을 위한 티켓 구매, 항공권 구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은 너무 크다 보니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① 견강부회(牽强附會) ② 비육지탄(髀肉之嘆)
③ 자승자박(自繩自縛) ④ 화이부동(和而不同)

베리타스고시학원 | 02.826.5700 www.veritasMgosi.co.kr (주) 유비온 | 유비쿼터스에 기반한 평생교육기업 www.ubion.co.kr

정답 ③

[한자성어 – 상황에 적용하기]

제시문은 포화 상태인 업계가 기존 회원보다 더 높은 연회비를 내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사업비 부담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더 크게 벌려고 소비자들에게 약속해 놓은 사업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닥쳤으니, 이는 곧 '자승자박'의 꼴이다.

* 自(스스로 자) 繩(줄 승) 自(스스로 자) 縛(묶을 박): 제 줄로 제 몸을 옭아 묶는다는 뜻으로, 자신이 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하게 됨을 이르는 말.

오답피하기

① 牽(끌 견) 强(굳셀 강) 附(붙을 부) 會(모일 회) :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② 髀(넓적다리 비) 肉(고기 육) 之(갈 지) 歎(읊을 탄) :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

④ 和(화할 화) 而(말 이을 이) 不(아닐 불) 同(한가지 동) :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아니함.

*** 2013년도 5월 실전 문제풀이 8회 / '나눔씨패스' 실전 문제풀이 9회 적중**

13. 다음 문장의 (　　) 속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한자성어는?

苦痛의 느낌이나 無知의 自覺은 전혀 다른 問題가 아니고, 同一한 問題의 두 側面이다. 共同 運命으로서 느끼는 苦痛은 우리 文化가 過去에 스스로 지은 말과 생각과 行動의 習慣이 現在 完了 進行形으로 쌓여, 至今까지 作用하고 있는 (　　)의 굴레를 말한다. 그리고 無知의 自覺은 그 現在 完了 進行形 狀態에 있는 習氣의 拘束을 풀 수 있는 解放의 새 智慧를 말한다.

– 김형효 <마음 혁명> 중에서

① 自繩自縛　　② 自家撞着

③ 孟母斷機　　④ 糊口之策

13. ①

자승자박 : 1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옭아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옭혀 곤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제 마음으로 번뇌를 일으켜 괴로움을 만듦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답 피하기>

② 자가당착 :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

③ 맹모단기 : 맹자가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어머니가 짜던 베를 잘라서 학문을 중도에 그만둔 것을 훈계한 일을 이르는 말.

④ 糊(풀 호) 口(입 구) 之(어조사 지) 策(채찍 책) : 가난한 살림에서 그저 겨우 먹고살아 가는 방책.

문 12. 다음 어느 부처 공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을 잘못 고친 것은?

제목: 위탁 교육 운영 계약 체결 의뢰

우리부 직원들의 정보화 및 사무자동화 능력 향상을 통해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고저 '2009년 하반기 부내 정보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인 바, 이 교육의 위탁 운영을 위한계약 체결을 아래 밝힌바와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우리부 → 우리 부

② 기억하고져 → 기여하고저

③ 계획인 바 → 계획인바

④ 밝힌바와 → 밝힌 바와

정답 ②

[쓰기-퇴고-어문규정 적용]

평상시 구어 표현에 자주 등장하는 잘못을 잘 찾아낸 문제이다.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는 '-고자'로 써야지 '-고저, -고져'라는 표현은 옛 표현으로 부적절하다.

오답피하기

① 합성어는 새로운 의미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부'라는 부서가 따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의 부'에서 관형격 조사 '의'를 생략한 것으로 보아야 옳다. 따라서 '우리∨부'라고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바'가 의존명사로 쓰였는지, 아니면 '-ㄴ바'라는 꼴로 나타나는 어미로 쓰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풀리는 문제이다. 간단한 확인 법이 있다. '바'가 의존명사로 쓰였다면 '것' 또는 '곳' 따위로 바꿔 쓸 수 있다. '바'가 어미로 쓰였다면 '것, 곳' 따위로 바꾸지 못할뿐더러 '~는데/~ㄴ데'와 같은 표현으로 바꿔 써도 문제가 없다.

제시된 문제는 '추진할 계획인데'라고 바꿀 수 있으니, '추진할 계획인바'라고 붙여 쓰는 것이 합당하다.

④ 제시된 문제는 '아래 밝힌 것과 같이'라고 바꿔 써도 되니, '밝힌 바와 같이'라고 띄어 써야 합당하다.

*** 2013년 6월 국가직 대비 17회 적중 모의고사 제시문에 언급**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前略)

또, '니르고져'의 '-고져'는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인데 지금은 '-고자'로 쓰이며, '홇 배 이셔도'에서 의존 명사 '바'에 주격 조사 'ㅣ'가 붙어 있지만, 지금의 국어에서는 '하는 바가 있어도'처럼 주격 조사 '가'가 쓰인다. 이는 15세기에서 지금에 이르는 동안 문법에도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예이다. 이처럼 우리말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를 해 왔다.

7. 윗글의 중심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① 언어의 통시적 변화 양상을 알게 되었다.

문 13.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 합성어는 형성 방식에 있어서 앞의 어근과 뒤의 어근이 의미상 결합 방식이 어떠하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앞뒤'는 두 어근의 결합 방식이 대등하므로 대등합성어, '돌다리'는 앞 어근이 뒤 어근에 의미상 종속되어 있으므로 종속 합성어, '춘추'는 두 어근과는 완전히 다른 제삼의 의미가 도출되므로 융합 합성어라 할 수 있다.

① 손발 ② 논밭
③ 책가방 ④ 연세

정답 ③

[단어의 형성-합성어]

'책가방'은 '책 따위를 넣어서 들거나 메고 다니는 가방'으로 '가방'이라는 어근에 '책'이 종속되어 종속합성어라 보아야 옳다.

오답피하기

'① 손발, ② 논밭': '손과 발', '논과 밭'이라는 대등하게 접속조사를 쓸 수 있어 대등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④ '연세'는 '年歲'라는 '해년, 해세'라는 두 한자어가 결합하여 '나이'를 뜻하는 의미로 변화함으로써 융합합성어가 된다.

* 7월 국가직 대비 적중 모의고사(단과) 5회 문제 적중

> 1. 다음 합성어에 속하는 단어를 잘못 밝힌 것은?
>
> ① 대등합성어 : 논밭, 여닫다, 앞뒤, 똥오줌
>
> ② 종속합성어 : 돌다리, 갈아입다, 도시락밥
>
> ③ 융합합성어 : 춘추, 연세, 입방아, 돌아가다
>
> ④ 비통사적합성어 : 늦잠, 굶주리다, 산들바람, 재미나다
>
> 1. ④
>
> 주격조사(이/가), 목적격조사(을/를)가 생략된 경우는 통사적합성어로 취급한다. 따라서 '재미나다'는 통사적합성어에 속한다.

문 14.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ㄱ. 도구의 발달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져 인간은 자연 환경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
> ㄴ. 그리하여 인간은 자연이 주는 혜택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극복하게 되었다.
>
> ㄷ. 인류는 지혜가 발달하면서 점차 자연의 원리를 깨닫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 줄 알게 되었다.
>
> ㄹ. 필리핀의 고산 지대에서 농지가 부족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계단처럼 논을 만들어 벼농사를 지은 것이 그 좋은 예이다.

① ㄱ - ㄷ - ㄴ - ㄹ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ㄷ - ㄱ - ㄴ - ㄹ
④ ㄷ - ㄴ - ㄱ - ㄹ

정답 ③

[쓰기-문장의 연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자.

<1> 먼저 선택지의 순서를 따라 읽어나갈 생각을 하라.

선택지는 'ㄱ'과 'ㄷ'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ㄱ'은 '도구의 발달'이 '기술의 발달'로 이는 '자연 환경의 제약에서 탈피'라는 구도로 이어졌음을 밝혔다. 그런데 'ㄷ'에서 인류가 '지혜의 발달'을 통해 '새로운 도구를 만들 줄 알게 되었다.'라고 했으니 'ㄷ' 다음에 'ㄱ'을 연결하는 것이 흐름상 타당함을 알 수 있다.

<2>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 열쇠 말을 확인하라.

'ㄷ'에서 '도구의 발달'을 말하고, 이는 다시 'ㄱ'으로 이어져 '도구의 발달'이 '자연 환경 제약에서의 탈피'라는 형태로 이어졌다. 벌써 답은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도 확인 한 번 해 봐야 한다. ③의 순서에 따라 'ㄴ'이 이어질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ㄴ'은 '자연을 이용하고 극복하게 되었음'을 말했다. 이는 'ㄹ'로 이어지면서 자연 이용의 구체적 예시로 '필리핀 고산 지대의 계단식 논농사'를 들고 있다.

* 2013년도 7월 베리타스 전국 모의고사 유사 문제 출제

> 9. 다음 글을 논리적 순서에 맞춰 재배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ㄱ. 분단의 잣대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식으로 사상과 정치적 견해에 대한 자기 검열을 강요해 왔고, 이 때문에 진보와 보수의 의미 자체가 왜곡된 채 그 허상만 난무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
> ㄴ. 우리 사회의 내부적 분단은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적대적 원리로 무장시키고 국민을 어느 한쪽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
> ㄷ. 또한 분단의 잣대를 들이대면 언제나 무엇에서든 온 국민을 북한파와 남한파로 편 가르기 해야 하는 것처럼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
>
> ㄹ. 분단을 평생 탓하며 분단의 모순과 폐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온 사람들이 분단의 잣대에 익숙해져 버린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
> ㅁ. 게다가 이러한 편 가르기로 정치와 언론이 작동하고 이것이 먹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더 처절한 분단의 희생자로 만드는 것일 뿐이다.
>
> ㅂ. 이러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
> ① ㄱ - ㄴ - ㄷ - ㅁ - ㅂ - ㄹ ② ㄴ - ㄱ - ㄷ - ㅁ - ㄹ - ㅂ
>
> ③ ㄴ - ㄱ - ㄷ - ㅁ - ㄹ - ㅂ ④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 9. ③
>
> 문장의 연결은 각 문장의 핵심어들을 연결하면 쉽게 풀린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비슷한 '분단'이라는 용어가 똑같이 등장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때는 그 의미를 따져가며 연결해 나가야 한다.
>
> ㄴ. 우리 사회의 내부적 분단은 ~ 국민을 어느 한쪽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
> ㄱ. 분단의 잣대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식
>
> ㄷ. 분단의 잣대를 ~ 온 국민을 북한파와 남한파로 편 가르기 해야 하는 것처럼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

ㅁ. 게다가 이러한 편 가르기로 ~ 우리 자신을 스스로 더 처절한 분단의 희생자로 만드는 것일 뿐이다.

ㄹ. 분단을 평생 탓하며 분단의 모순과 폐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온 사람들이 분단의 잣대에 익숙해져 버린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ㅂ. 이러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문 15. 다음 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유명인의 사생활 보장이 국민의 알권리에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논제로 하여 찬반 양측 토론자 각 두 분씩과 배심원들을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사회자: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자신들의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하여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측 토론자 1: 저희 측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보다 유명인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유명인'은 말뜻 그대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인 생활 영역과 그와 관련된 개인적인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알권리'는 국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 관계되므로, '알권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권리'란 공공의 문제에 적용되는 개념 아닙니까? 유명인의 사생활은 공적 활동이 아니므로 알권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는 한 인간으로서 부여받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사생활을 보장받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찬성 측의 입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에서 준비해 온 입론을 듣겠습니다.

반대 측 토론자1: 저희는 유명인의 사생활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유명인'은 그 지명도를 바탕으로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사생활'과 '알권리'는 찬성 측의 개념과 같습니다. 우리는 유명인이 유명하다는 것 자체보다도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 정치인의 경우, 그가 사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가 정치 활동의 형태로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명연예인 또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① 사회자가 토론자들의 발언 순서를 통제하고 있다.
② 사회자가 논제에 대한 자신의 찬반 여부를 표명하고 있다.
③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논제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④ 찬성 측은 입론 단계에서 논제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①

[말하기-토론]

제시된 내용만 보고 판단한다고 마음을 먹어도 애매할 때도 있는 법이다. 사회자는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자신들의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하여 입론해 주십시오."라고 하여 발언 순서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엉뚱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오답피하기

② 사회자는 논제를 밝힌 뒤에 진행 방식만 밝혔을 뿐이다. 찬반 여부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③ 찬성과 반대라는 양측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미 찬성이고 반대라는 입장을 내걸고 논쟁을 벌이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④ '구체적'이라는 말 때문에 혼란스러웠을 수 있다. 논제가 '유명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이다. 찬성 측은 '유명인'으로 그 어떤 이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이 문제였을 수 있다.

*** 2013년도 7월 국가직 대비 적중 모의고사 2회 유사 문제 출제**

19. 다음의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사회자 : 한류 원인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가 서로 다르군요. 문화가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류 열풍의 원인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죠. 다음은 "한류 현상을 거품으로 봐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대표 : 거품이라는 주장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사는 중국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획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중략)

사회자 :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거품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이 교수님은 혹시 거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이 교수 : 저는 한류를 상품적인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상품은 새롭게 개발해 가야 하거든요. (하략)

① 추상적 용어를 사용해 청중의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
②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을 지나치게 요약하고 있다.
③ 자연스런 진행을 끊는 불필요한 개입을 하고 있다.
④ 의도적으로 토론자 사이에서 의견 대립을 유도하고 있다.

19. ④

토론에서 사회자는 의견이 다른 토론자 사이에서 공정한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본의 사회자는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대립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문 16. 밑줄 친 단어가 맞춤법에 맞는 것은?

① 어머니는 나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다.
② 나라 안밖에서 피난민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였다.
③ 철수와 나는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막연한 친구였다.
④ 매점 앞 게시판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자 이름이 가득 적혀 있다?

베리타스고시학원 | 02.826.5700 www.veritasMgosi.co.kr (주) 유비온 | 유비쿼터스에 기반한 평생교육기업 www.ubion.co.kr

정답 ①

[한글 맞춤법]

참 쉽게 출제된 문제이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는 '바람'이다. 이 단어는 익히 알다시피 '바라다'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색깔이 바래다.'와 같은 문장에 쓰이는 '바래다'를 생각하여 '바램'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답피하기

② '안ㅎ'과 '밖'이 결합되면서 거센소리 형태인 '안팎'이라는 단어가 나타났다.

③ '막연(漠然)'과 '막역(莫逆)'을 구분해야 한다. 친한 벗을 가리키는 표현은 '거스름이 없는 친구'인 '막역지우(莫逆之友)'를 알았다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던 문제이다.

④ '게시판(揭示板)'의 '게(揭)'는 '높이 들다, 걸다'의 뜻을 지닌 한자로 '계'로 잘못 써서는 안 된다.

* 2013년도 6월 전 범위 적중 모의고사 14회

5. 다음 문장들 중 잘못 사용된 낱말이 하나도 없는 것은?

① 어제는 눈이 많이 내리고 강추위가 지속됐다.

② 지우와 나는 늘 함께 어울려 다니는 막역한 사이이다.

③ 옷을 두텁게 입어서 그런지 덥다.

④ 그녀는 항상 사람들에게 깎듯이 인사를 한다.

* 고갱이국어 5월 실전 모의고사 8회

10.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맞춤법이 모두 올바른 것은?

① 비록 고통스럽겠지만 네가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섰으면 하는 바램이다.

② 전쟁 때문에 과부가 된 그녀는 악바리처럼 아둥바둥 살았다.

문 17.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 지구상에는 193종의 원숭이와 유인원이 살고 있다. 그 가운데 192종은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 단 한 가지 별종이 있으니, 이른바 '호모 사피엔스'라고 자처하는 털 없는 원숭이가 그것이다. 지구상에서 대성공을 거둔 이 별종은 보다 고상한 욕구를 충족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엄연히 존재하는 기본적 욕구를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데에도 똑같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는 모든 영장류들 가운데 가장 큰 두뇌를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두뇌뿐 아니라 성기도 가장 크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면서 이 영광을 고릴라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그는 무척 말이 많고 탐구적이며 번식력이 왕성한 원숭이다. 나는 동물학자이고 털 없는 원숭이는 동물이다. 따라서 털 없는 원숭이는 내 연구 대상으로서 적격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아주 박식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원숭이이고, 숭고한 본능을 새로 얻었지만 옛날부터 갖고 있던 세속적 본능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오래된 충동은 수백만 년 동안 그와 함께해 왔고, 새로운 충동은 기껏해야 수천 년 전에 획득했을 뿐이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축적된 유산을 단번에 벗어던질 가망은 전혀 없다. 이 사실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한다면, '호모 사피엔스'는 훨씬 느긋해지고 좀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물학자가 이바지할 수 있는 영역이다.

① 인간에 대해서도 동물학적 관점에서 탐구할 필요가 있다.

② 인간은 자신이 지닌 동물적 본능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③ 인간의 박식과 숭고한 본능은 수백만 년 전에 획득했다.

④ 인간이 오랜 옛날부터 갖고 있던 동물적 본능은 오늘날에도 남아있다.

정답 ③

[독해-내용의 일치]

숫자에 약한 수험생들이 있다. 여기서도 말장난을 이 숫자로 하고 있다.

숭고한 본능은 새로운 충동이다. 이 새로운 충동은 기껏해야 수천 년 전에 획득했다. 여기서 말하는 수백만 년 전에 획득한 본능은 오래된 충동이요, 세속적 본능이다. 전후 맥락을 잘 살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마지막 문장 "동물학자가 이바지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동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탐구할 필요를 밝혔다.

② "그는 모든 영장류들 가운데 가장 큰 두뇌를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두뇌뿐 아니라 성기도 가장 크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면서 이 영광을 고릴라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라는 표현에서 동물적 본능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④ "옛날부터 갖고 있던 세속적 본능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라는 진술을 통해 밝혔다.

* 2013년도 7월 적중 모의고사 9회 유사 문제 출제

12.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 생활 주위에는 음파, 광파, 전파 등과 같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파동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파동 현상은 파도일 것이다. 이러한 파도 중 수면파의 모습은 대체로 곡선 파형을 띠고 있다.

~ 파도가 해안에 접근하면 수심이 얕아지면서 해저 지형과의 마찰이 발생하여 파도가 진행 방향으로 압축되며 속도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해안에 접근하는 파도의 마루선이 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굴절이라 한다.

- 박용안, <바다의 과학>에서

① 파도의 높이는 물 입자의 운동으로 생긴 원의 지름에 해당한다.

② 바람이 없을 경우에 너울은 해안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풍랑이 된다.

③ 파도가 장애물을 만나 회절할 때 회절 각이 크면 파고는 낮아진다.

④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돌출 지형은 연안쇄파 형성의 원인이 된다.

베리타스고시학원 | 02.826.5700 www.veritasMgosi.co.kr (주) 유비온 | 유비쿼터스에 기반한 평생교육기업 www.ubion.co.kr

문 18.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힐링(Healing)은 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 등으로 손상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우리보다 먼저 힐링이 정착된 서구에는 질병 치유의 대체요법 또는 영적, 심리적 치료 요법 등을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힐링과 관련된 갖가지 상품이 유행하고 있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천 가지의 상품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종교적 명상, 자연 요법, 운동 요법 등 다양한 형태의 힐링 상품이 존재한다. 심지어 고가의 힐링 여행이나 힐링 주택 등의 상품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　　) 우선 명상이나 기도 등을 통해 내면에 눈뜨고, 필라테스나 요가를 통해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여 자신감을 얻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다.

① 힐링이 먼저 정착된 서구의 힐링 상품들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②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 이러한 상품들의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④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답 ②
[문장의 연결]
'그러나'라는 접속어를 잘 관찰했어야 한다. 앞선 내용이 고가 상품의 힐링 상품이 존재함을 밝혔고, 뒷부분의 내용이 명상과 기도 같은 고가 상품이 아닌 경우이이다. 그렇다면 뒷부분과 연결하면 ②가 답이 된다.

* 건곤일척 진도별 문제집 '논리적인 글'에 유사 문제 출제

12.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前略)

한국 영화의 이미지는 배우를 '딴따라'로 보는 유교적 엄숙주의 속에서 숭고미를 서양에서만큼 획득하지는 못한다. 그래도 TV의 보편화 이전 시대, 한국 영화 황금기의 배우들의 이미지는 지금에 비해 카리스마적 미를 상징하는 고결함을 보여준다. 김지미, 최은희, 고은아, 김진규, 남궁원, 최무룡……. 이들은 서민적 이미지와는 거리를 둔 빼어난 외모로써 연기력과 상관없이 숭고한 이미지의 파워를 보여준다. 그리고 관객은 그들의 이미지를 구경하기 위해 극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이제 인기 관리를 위해 TV에 나와 사생활까지도 몰래 카메라로 공개하는 영화배우들에게 (　　). 이미지는 더 이상 스크린 속에 갇혀 있는 데 만족하지 않고 스크린 밖으로 산파된다. TV·비디오·위성 TV·컴퓨터와 컴퓨터 게임 같은 테크놀로지 장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물품들—문구류와 옷(텔레토비 옷을 색깔마다 입은 아이들을 보라)—속에 메타 이미지로 재생산된다. 이것을 경제적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라고 하기도 하며 '윈도우 이펙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미지 디아스포라 시대 이미지 창조와 유통 재생산은 영상 산업 경제학을 거대 단위로 만들어낸다.

① 그런 숭고한 이미지를 산업적 차원으로 변화시키기를 요구한다.

② 희극적 이미지만의 생산을 요구한다.

③ 그런 숭고한 이미지를 상상하기는 힘들다.

④ 다양한 삶의 차원까지 드러내라고 요구한다.

12. ③

이전 시기의 영화배우들이 "서민적 이미지와는 거리를 둔 빼어난 외모로써 연기력과 상관없이 숭고한 이미지의 파워를 보여준다."라고 앞서서 이야기했고, 이와는 반대로 지금의 영화배우들은 사생활까지도 공개해야 하므로 "그런 숭고한 이미지를 상상하기는 힘들다."로 표현되는 것이 적절하다.

문 19.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이곳 속초 청호동은 본래의 지명보다 '아바이 마을'이라는 정겨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함경도식 먹을거리로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동네이기도 하다. 속초의 아바이 마을은 대한민국의 실향민 집단 정착촌을 대표하는 곳이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4 후퇴 당시, 함경도에서 남쪽으로 피난 왔던 사람들이 휴전과 함께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이곳 청호동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다.

동해는 사시사철 풍부한 어종이 잡히는 고마운 곳이다. 봄 바다를 가르며 달려 도착한 곳에서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한 '어울'을 끌어올려 보니, 속초의 봄 바다가 품고 있던 가자미들이 나온다. 다른 고기는 나오다 안 나오다 하지만 이 가자미는 일 년 열두 달 꾸준히 난다. 동해를 대표하는 어종 중에 명태는 12월에서 4월, 도루묵은 10월에서 12월, 오징어는 9월에서 12월까지 주로 잡힌다. 하지만 가자미는 사철 잡히는 생선으로, 어부들 말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리고기'라 한다.

청호동에서 가자미식해를 담그는 광경은 이젠 낯선 일이 아니라 할 만큼 유명세를 탔다. 함경도 대표 음식인 가자미식해가 속초에서 유명하다는 것은 입맛이 정확하게 고향을 기억한다는 것과 상통한다. 속초에 새롭게 터전을 잡은 함경도 사람들은 고향 을 기억한다는 것과 상통한다. 속초에 새롭게 터전을 잡은 함경도 사람들은 고향 음식이 그리웠다. 가자미식해를 만들어 상에 올렸고, 이 밥상을 마주한 속초 사람들은 배타심이 아닌 호감으로 다가섰고, 또 판매를 권유하게 되면서 속초의 명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① 속초 자리고기의 유래
② 속초의 아바이 마을과 가자미식해
③ 아바이 마을의 밥상
④ 청호동 주민과 함경도 실향민의 화합

정답 ②
[쓰기 - 제목 찾기]
제목은 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소재 즉 제재이거나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경우 제재는 각 단락의 주제문들에 반복하여 등장하는 어휘들이 들어 있는 제목을 답으로 하면 된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속초 청호동이 아바이 마을로 불리고 있고, 함경도에서 피난 왔던 사람들이 정착한 곳임을 밝혔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속초에서 사철 잡히는 가자미에 대해 말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속초의 명물로 재탄생하게 된 청호동의 가자미식해에 대해서 밝혔다. 그렇다면 '속초의 아바이 마을, 가자미식해' 등이 주된 서술 대상이니 이를 보여주는 ②를 답으로 선택하면 된다.

* 2013년도 대비 6월 실전 모의고사 13회 유사 지문 출제

1.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렇기에 파괴적으로 '스펙' 경쟁에 올인하고 잠시 동안 이 경쟁을 잊게 해주는 프로포폴 같은 '힐링'에 집착하는 까닭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갑을관계나 경쟁이 삶을 지배하는 한, 불투명한 미래와 불안하고 초조한 일상을 견디기 위해서는 더 나은 사회보다 더 나은 '나'를 꿈꾸는 편이 속편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죽음과 유혹으로 추동되는 자본주의가 그대로 실현된 것이 2013년의 한국사회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생존을 위한 스펙 경쟁이 죽음과 종이 한 장 차이이기에, 또한 마음을 쉬게 해주는 힐링이 다시 경쟁으로 되돌아가도록 추동하는 유혹에 다름 아니기에 그렇다. (하략)

① 대학의 존재 방식
② 스펙과 힐링이 지배하는 한국사회
③ 생존을 위한 스펙 경쟁
④ 정언명령을 실천하는 대학

1. ②

첫 번째 단락의 "생존을 위한 스펙 경쟁이 죽음과 종이 한 장 차이이기에, 또한 마음을 쉬게 해주는 힐링이 다시 경쟁으로 되돌아가도록 추동하는 유혹에 다름 아니기에 그렇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중심 내용을 알 수 있다. 뒤의 단락들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서술이라 하겠다.

문 20.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판이란 법원이 소송 사건에 대해 원고·피고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소송 절차를 말한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에도 재판 제도가 있었다. 당시의 재판은 크게 송사(訟事)와 옥사(獄事)로 나뉘었다. 송사는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관청에 판결을 호소하는 것을 말하며, 옥사는 강도, 살인, 반역 등의 중대 범죄를 다스리는 일로서 적발, 수색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송사는 다시 옥송과 사송으로 나뉜다. 옥송은 상해 및 인격적 침해 등을 이유로 하여 원(元;원고), 척(隻;피고) 간에 형벌을 요구하는 송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사송은 원, 척 간에 재화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 양도, 변상을 위한 민사 관련 송사를 말한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러한 송사나 옥사를 맡아 처리하는 기관은 어느 곳이었을까? 조선 시대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재판관과 행정관의 구별이 없었다. 즉 독립된 사법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재판은 중앙의 몇몇 기관과 지방 수령인 목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 등과 관찰사가 담당한다.

① 일반적인 재판의 정의
② 조선 시대 송사의 종류
③ 조선 시대 송사와 옥사의 차이점
④ 조선 시대 재판관과 행정관의 역할

정답 ④

[독해 – 내용의 파악]

내용의 일치를 묻고 있는 문제이다. 제시문을 보면 마지막 단락에서 "재판관과 행정관의 구별이 없었다."라고 했다. 따라서 '재판관과 행정관'의 구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표현인 '재판관과 행정관의 역할'은 글의 내용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피하기

① '재판이란 ~ 소송 절차를 말한다.'에서 알 수 있다.
② 둘째 단락에서 조선 시대의 송사로 옥송과 사송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③ 첫째 단락에서 '송사'와 '옥사'가 있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밝혔다.

베리타스고시학원 | 02.826.5700 www.veritasMgosi.co.kr (주) 유비온 | 유비쿼터스에 기반한 평생교육기업 www.ubion.co.kr